

## 韓國의 賃金分配의 推移, 1967~81 : 論評

朴 世 逸\*

『經濟學研究』 제31집에 李廷雨교수는 「韓國의 賃金分配의 推移, 1967-81」을 발표했다. 먼저 李교수 論文을 보고 강하게 느낀 점은 論文속에 나타난 李교수의 차분한 性格과 치밀한 研究者의 자세이다. 李교수가 論文을 作成할 當時 使用可能했던 賃金統計資料, 특히 微視資料는 극히 制限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자료의 制限性을 克服하면서, 한국의 賃金分布의 時系列의 分析을 이 論文이 시도하고 있다. 이 論文의 長點은 李교수의 分析結果 그 自體의 當·否에 있다가 보다, 分析過程, 특히 不完全한 資料의 계약성을 克服해 보려는 李교수의 치밀하고 誠實한 努力과 그 組織的 接近方法에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一部 研究者들이 研究의 기피 내지 포기를 資料의 制約에 돌리는 傾向이 적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李교수의 論文은 비록 制約된 資料이지만, 利用可能한 모든 資料를 총동원하여 크로스 체크하면서 치밀히 분석해 보면 여러가지 좋은 研究도 可能하다는 點을 보이는 좋은 龜鑑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本人이 李교수의 分析過程上的 努力을 높이 評價하고, 分析結果 그 自體에 대하여 相對的으로 큰 比重을 두지 않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즉 李교수가 論文을 作成할 當時 利用可能했던 主資料는 71년도 勞動部의 職種別賃金調査 데이터 데이프 하나였고, 기타 연도에는 賃金階層別 勤勞者數 資料 뿐이었다. 따라서 時系列分析을 위해서는 資料의 극히 큰 制約性이 있었으나, 그 以後 最近에 70년대 全期間의 各年度 데이터 데이프를 活用하여 直接 지니(Gini), 變異係數·對數分散 등을 推定한 研究結果가 나왔기 때문이다(『韓國의 賃金構造』,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54, 1984. 10, pp. 54-68). 따라서 分析結果에만 局限하여 이야기하면, 李교수의 研究는 60년대 임금소득의 變化에 대한 部分은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나, 70年代의 分析結果의 當·否는 이 最近의 研究結果——分析上 큰 瑕疵가 發見되지 않는 限——에 의해 代替되어야 할 것 같다.

\* 韓國開發研究院.

앞으로 所得分配나 賃金分布變化를 研究할 때 몇가지 改善할 수 있는 點을 提起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반드시 李敎수 論文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研究에도 자주 나타나는 問題點이지만 소위 지니계수가 가지는 相對性 혹은 不完全性을 확실히 밝혀두는 문제이다. 所得分配의 變化를 指數化할 때 지니계수가 비교적 無難한 指標인 것은 事實이나, 이것도 로렌스 曲線이 교차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고 다른 指標들도 물론 각각의 문제점과 限界가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可能한 限 여러 指標를 뽑아, 그 變化를 보고, 各 指標가 가지는 특징, 예컨대 變異係數나 타일(Theil) 指數의 경우는 소위 高所得者의 所得分散變化에 보다 민감하다든가, 對數分散의 경우는 低所得者의 所得分散變化가 보다 크게 反映된다든가, 혹은 所得分散이 比較의 中位圈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의 所得分布變化는 지니係數가 相對的으로 잘 포착한다든가 등의 諸特徵을 明示的으로 감안하여 分析을 행하면 보다 바람직한 것 같다.

이러한 方向으로의 分析이 행하여 질 때 所得分配가 單純히 全體的으로 惡化되었다든가 혹은 改善되었다든가 하는 一律의 結論보다는 소득분배 變化의 構造에 대한 보다 深層의 說明이 가능할 것이다(예컨대 高所得層에서는 分配가 보다 不平等해졌으나, 低所得層에서는 分配改善이 이루어졌다든가 등). 李敎수의 論文의 경우에는 資料의 制約上 對數分散이나 變異係數의 계산은 어려웠을 것이나, 타일指數의 계산이나, 나아가 十分位分配率까지도 계산은 可能했지 아니했나 생각된다. 이러한 問題點은 最近研究(『韓國의 賃金構造』)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 研究에서는 資料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各種 指數가 거의 대부분 計上되고 있으나 各指數의 特徵에 착안하여, 이를 活用하여 所得分配變化의 構造說明까지는 試圖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소득분배변화의 構造分析이 나오면 原因說明이 보다 쉬워지리라 생각된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所得이나 賃金分布의 變化를 연구할 때 우리 研究者들 대부분은 分配가 改善되었다든가 惡化되었다든가 하는 確實하고 明白한 結果를 얻는 데 너무 急急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보다 具體的으로 이야기하면 예컨대 지니係數가 소숫점 몇째 자리에서 얼마나 變化할 때 우리는 과연 分配가 改善 혹은 惡化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선 確定해야 하는 것은 그 變化가 統計的으로 有意한가 하는 문제인 바, 이를 검증하는 統計手法은 비교적 쉽게 開發될 수 있으나, 그 다음에는 비록 統計的으로 有意하다 하여도 그것이 곧 經濟的으로 有意하다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點들에 대한 考慮가 앞으로 좀 더

補强되어야 할 것 같다. 換言하면 우리가 過去 70년대 賃金所得分布가 지속적으로 改善되어 왔다는가(李교수의 論文) 혹은 70년대 中盤까지는 큰 變化가 없다는 그 以後에 급속히 改善되었다고 주장할 때(『韓國의 賃金構造』), 그 無變化 혹은 改善의 統計的, 나아가 經濟的 意味를 어떻게 確定지을까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勞動部の 職種別 賃金統計를 사용하는 研究者들이 자주 看過하는 조그만 문제는 定額給與와 超過給與에 대한 賃金調査의 基準時點은 當該年度 3월(75년까지는 4월)이라는 것과 特別給與는 前年度에 1年間 지불된 金額이라는 點, 또한 75년부터는 總給與에 現物給與가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點, 71~81年間만에도 6차례의 표본프레임의 變化가 있었고 거의 同一표본프레임과 표본크기를 사용한 期間은 72~74년과 76년, 77~79년, 80~81년이라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資料上의 特徵들을 時系列分析時 그 結果를 說明할 때 감안하면, 특히 當該年度의 巨視 經濟變化나 그 指標와 關聯시켜 說明할 때, 좀 더 재미있고 說得力있는 說明이 가능하리라 思料된다.

끝으로 李교수가 비록 극히 制限된 資料를 가지고 時系列分析을 試圖하였지만, 그 分析結果를 最近에 보다 풍부한 資料를 가지고 分析한 研究結果와 對比할 때, 70년대 우리나라 賃金分布變化의 方向에 관한 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點은 李교수의 分析의 치밀성과 성실성을 잘 보여 주는 證據가 아닌가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 [1] 朴烜求·朴世逸, 『韓國의 賃金構造』,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84.
- [2] 李廷雨, 「韓國의 賃金分配의 推移, 1967~81」, 『經濟學研究』 제31집(1983. 12).



## 韓國의 賃金分配의 推移, 1967~81 : 回答

李 廷 雨\*

朴世逸박사가 筆者의 論文을 읽고 銳利하고 說得力있는 論評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筆者의 보잘 것 없는 研究方法이나 研究態度에 관한 朴박사의 지나치게 높은 評價를 접하고는 한편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 坐不安席의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사실 筆者의 論文은 資料의 限界라는 벽 앞에 서서 그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이리 저리 뜯어보려 본 데 지나지 않는다. 이 論文이 나온 뒤 韓國開發研究院의 朴烜求박사와 朴世逸박사가 勞動部의 『職種別賃金調査』의 컴퓨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1972년부터 1982년까지의 賃金分配의 推移를 세밀하게 분석해 놓고 있다(朴·朴 [1], pp. 53-68). 朴世逸 박사의 論評이 筆者의 計算結果에 대해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筆者는 朴世逸 박사의 論評과 두 朴박사의 研究를 합쳐서 거기에 答辯하는 형식을 취하고 싶다.

朴世逸 박사의 論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同感이며 筆者로서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밝히지 않으면 안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 두 朴박사의 冊에서도 그러하고 이번의 朴世逸박사의 論評에서도 느끼는 바이지만 簡易法에 의존한 筆者의 計算結果가 두 朴박사의 그것과 상당한 誤差가 있는 것 같은 印象을 주기 쉬우나 사실은 誤差가 매우 작다는 점이다. 두 朴박사의 研究結果를 보면 지니係數가 1972년의 0.402에서 1980년에는 0.367로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朴·朴 [1], p. 56, <表 1-7>), 이 冊의 p. 54의 註 16에서는 다른 구체적인 說明은 없이 筆者가 계산한 지니係數가 “1970년에서 1981년 사이에 0.39에서 0.34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만 引用하고 있다. 그리하여 두 朴박사가 의도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자칫 筆者의 簡易法에 의한 計算이 틀린 듯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差異가 생긴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두 研究에서 채택한 賃金의 定義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筆者의 研究에서는 賃金에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고 있고(이는 出版된 『職種別賃金調査』의 賃金階

\* 慶北大學校 經濟學科.

層別 勤勞者數의 統計가 대개 보너스를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두 박사의 研究에서는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너스는 上厚下薄의이라고 보여지므로 두 박사의 研究에서 지니係數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筆者는 위의 論文에서 보너스를 포함시켰을 때의 지니係數를 계산해 본 결과도 짧게 보고하고 있는데(p. 89, <表 2>), 그것을 보면 지니係數가 1971년의 0.402에서 1980년에는 0.361로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두 박사의 計算結果와의 誤差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이프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의거한 지니係數의 計算이 정확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테이프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統計冊字에 의거한 簡易計算法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평대신 답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답은 평을 많이 답은 것 같다.

또 하나 해명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1970년대의 賃金分配의 變動을 어떻게 시기적으로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두 박사의 研究에 의하면 賃金不平等이 1972~76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고 1976~80년 사이에는 뚜렷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朴世逸박사의 論評과 두 박사의 冊에서 공통적으로 筆者가 “197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賃金所得의 分布가 改善되었다”(朴·朴 [1], p. 54)고 주장하였다고 引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筆者는 1970년대 中盤의 資料의 制約上 1970년대 前半에 대해서는 지니係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큰 變動은 없는 듯하다는 불확실한 추측을 하였던 것이고 지니係數가 상당히 빠르게 하락한 것은 1970년대 後半이라고 썼던 것이다(p. 88, p. 98).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限 筆者와 두 박사의 研究結果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다만 筆者가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그것은 “1970년대 전체를 통털어 볼 때에는 지니係數가 하락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李 [2], p. 88)라든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1970년대는 賃金の 不平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李 [2], p. 99)고 쓴 表現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런 表現의 意味는 지니係數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1970년대 中盤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어쨌든 1970년대초와 10년 뒤를 비교해 본다면 지니係數가 낮아졌다는 뜻이다.

筆者가 이런 表現을 쓴 배경은 원래 論文에서도 밝혔지만 1970년대에 와서 勤勞所得의 分配가 不平等해졌다고 하는 朱鶴中박사의 널리 알려진 研究成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이 있었다. 그런데 筆者가 이용한 統計冊字에는 1970년대 中盤의 資料가 특히 취약하여 1970년대 前半에 賃金分配가 惡化됐는지에 대해 약간

의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그쳤고 적어도 1970년대 後半에는 賃金不平等이 감소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두 박박사의 研究結果를 보면 1970년대 前半에 勤勞所得의 分配가 不平等化했다고 하는 朱박사의 主張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朱박사는 최근에 1982년의 所得分配를 推計한 바 있다(朱·尹 [3]). 그 結果를 보면 1982년에는 都市 勤勞者家口所得의 分配가 다시 反轉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니係數를 보면 1965년에 0.399, 1970년에 0.304, 1976년에 0.355, 1982년에는 0.309이다). 1976~82년의 期間에 관한 限 두 박박사나 筆者의 研究結果와 부합하는 것이지만 1970~76년의 期間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역시 異見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朱박사는 여전히 1970년대는 不平等化의 時期였다는 立場을 견지하면서 “70년대를 통하여 나타났던 所得不平等化의 추세가 80년대초에 이르러 꺾이고”(朱·尹 [3], p.17)라고 쓰고 있는데 이 해석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두 박박사와 筆者의 研究結果에 따르면 賃金에 관한 限 不平等이 크게 감소한 것은 1970년대 後半이며 1980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不平等이 停滯 내지 深化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朴世逸박사의 다른 論評은 모두 정확하며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지니係數 하나만 가지고 不平等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筆者가 이용한 자료를 가지고 타일指數나 10分位分配率을 推計하려면 추가로 여러가지 恣意的인 假定을 도입해야 하므로 구태여 시도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지니係數가 얼마나 하락했을 때 分配가 改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미묘한 문제임에 틀림없으나 다른 대부분의 研究에서와 마찬가지로 筆者도 그 점을 看過한 것이 사실이다. 끝으로 『職種別賃金調査』의 標本の 性質이 다소 변화해 왔다는 점도 좋은 지적인데 그것이 계산된 지니係數의 신빙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겠다. 好意的이고도 銳利한 朴世逸박사의 論評으로부터 깨달은 바가 많으며 그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 參 考 文 獻

- [1] 朴煥求·朴世逸, 『韓國의 賃金構造』,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84.
- [2] 李廷雨, 「韓國의 賃金分配의 推移, 1967~81」, 『經濟學研究』 제31집 (1983. 12).
- [3] 朱鶴中·尹珠賢, 「1982年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제6권 제1호(1984, 봄).